



#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의 의미

임태준 연구위원, 이규성 연구원

- 생명보험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약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나, 최근 해약환급금 증가 추세를 두고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가계재정상태 악화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음.
  - 2016년 2분기 누적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6.3% 증가한 10.6조 원으로 연말에는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.
-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6년 2분기에 1.4%로 관측되었는데, 이는 2010년 2분기 대비 23.6% 상승한 수치임.
  -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지급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뜻함.
- 하지만,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 또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  - 2016년 2분기의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은 7.5%로 2010년 2분기 대비 23.7% 상승함.
-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고,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3년 이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  - 경기불황의 여파로 해약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경우라면 수입보험료 규모는 감소하고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증가하였을 것임.
- 따라서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것을 두고 경기불황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 계약자의 보험해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음.
-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,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음.
  - 첫째, 가계의 보험료 지출 규모가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.
  - 둘째, 소득양극화에 따라 보험시장이 중·고령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,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.

## 1. 검토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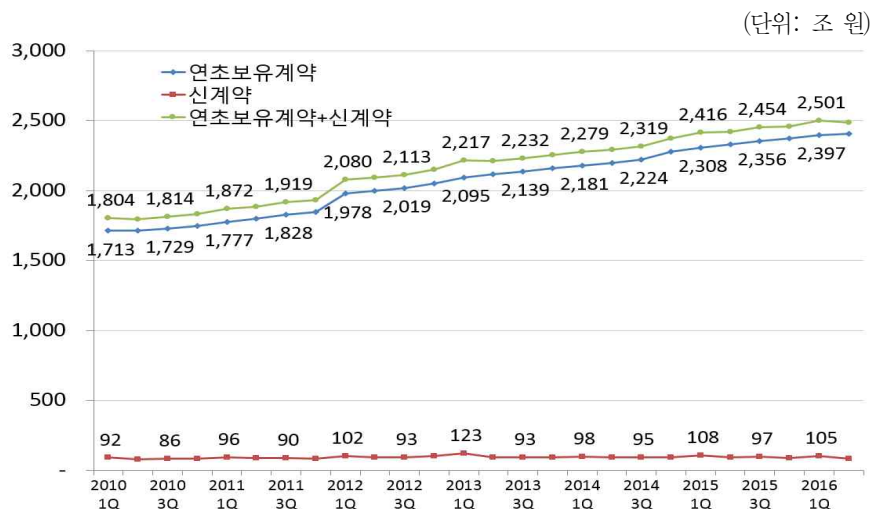


- 생명보험산업의 2016년 2분기 누적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(이하 “해약환급금”)은 10.6조 원으로 관측됨.<sup>1)</sup>

●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.3%(6,243억 원) 증가한 금액으로 연말에는 2000년 이후 최고치인 2015년 20.2조 원을 경신할 전망이다.

- 생명보험산업의 총 보유계약액이 증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임.<sup>2)</sup>

〈그림 1〉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연도별 추이(일반계정)



자료: 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통계』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.

- 하지만 최근의 해약환급금 증가 추세를 두고, 장기화된 경기 침체 여파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음.

- 본고에서는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한 진위 여부를 살펴보고 거시경제 및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1) 본고에서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금액은 일반계정 기준임.

2) 임태준(2015. 12. 28), 「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약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」, 『KiRi Weekly』, 제365호, 보험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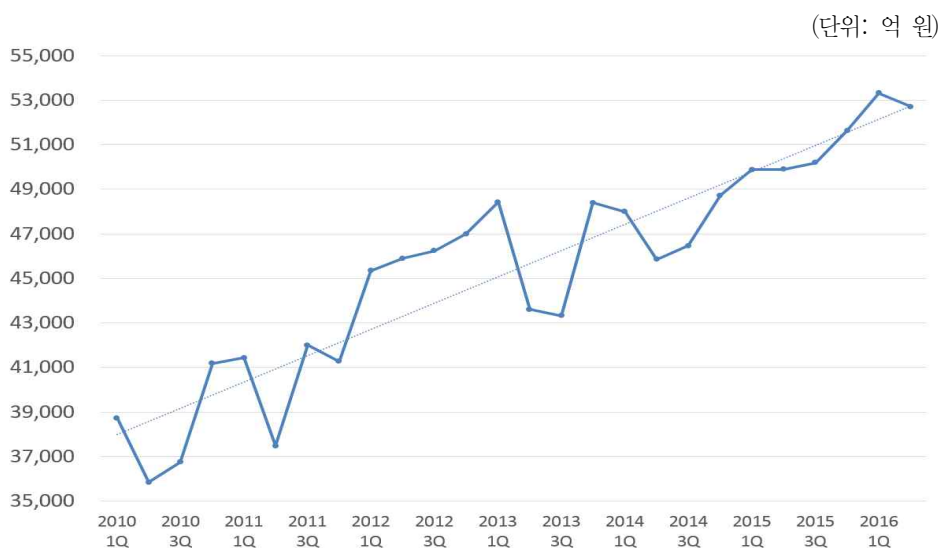
## 2.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지급 현황



■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2010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2분기에는 5.3조 원을 기록함(그림 2) 참조).

-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.6% 상승한 금액으로, 2010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1.2%임.
-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2016년 해약환급금은 2000년 이후 최고치(2015년 20.2조 원)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.

〈그림 2〉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지급추이



자료: 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통계』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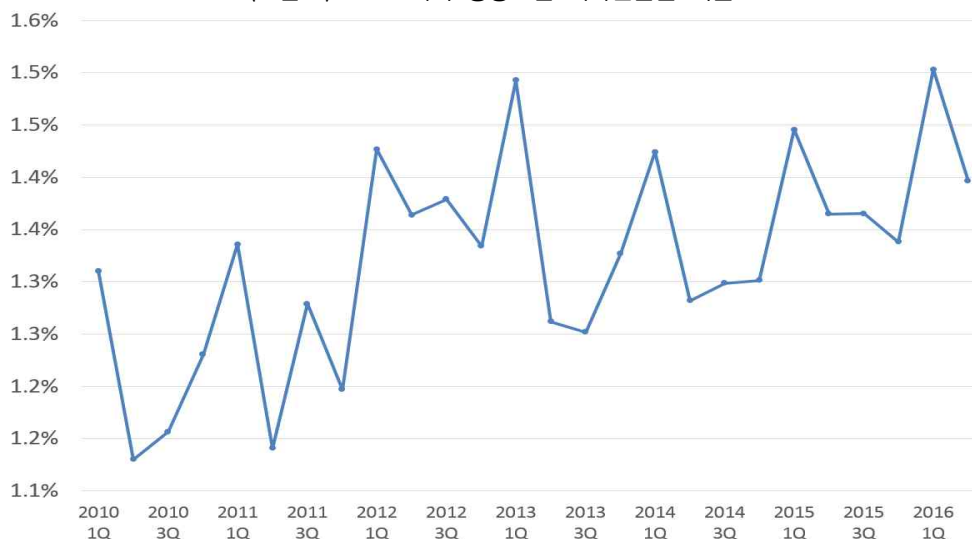
■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도 201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장기화된 불황의 여파로 계약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은 이에 근거하고 있음(그림 3) 참조).<sup>3)</sup>

- 2010년 2분기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1.1%에 머물렀으나, 2016년 2분기에는 2010년 2분기 대비 23.6% 상승한 1.4%를 기록함.
  - 동 기간 동안,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의 분기별 평균상승률은 0.3%임.

3) 본고에서 GDP는 「한국은행 국민계정」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뜻함(명목가격 기준).

-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뜻함.

〈그림 3〉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



자료: 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통계』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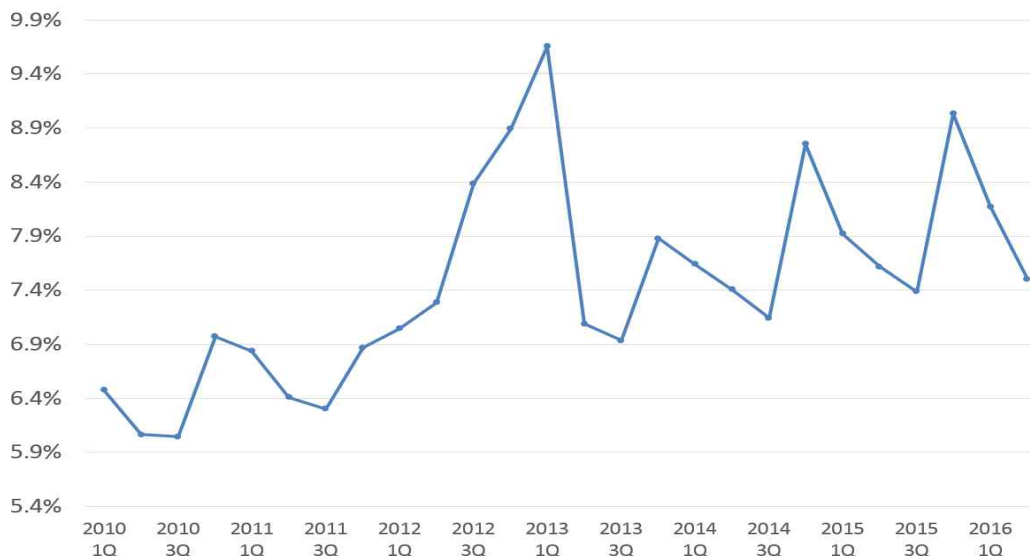
### 3.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비교



- 한편,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(〈그림 4〉 참조).
  - 2016년 2분기의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은 7.5%로 2010년 2분기 대비 23.7% 상승하였음(2010년 2분기 비율은 6.1%).<sup>4)</sup>
    - 동 기간 동안,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의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0.9%임.
-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보험료 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뜻함.

4) GDP 대비 수입보험료를 보험침투도라 정의하고 있음.

〈그림 4〉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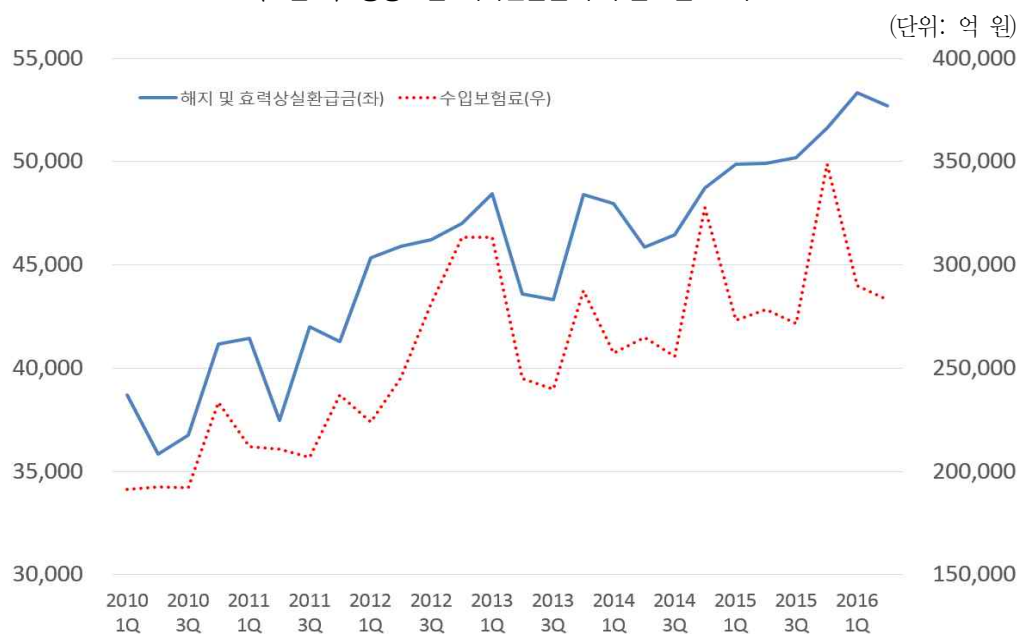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통계』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.

■ 한편, 2010년 이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과 수입보험료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(〈그림 5〉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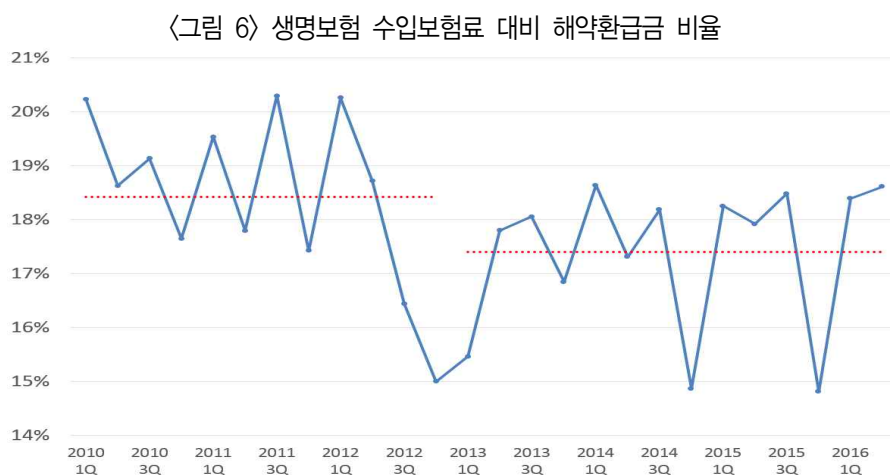
● 2010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생명보험 해약환급금과 수입보험료 간의 상관계수는 0.84임.

〈그림 5〉 생명보험 해약환급금과 수입보험료 비교



자료: 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통계』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.

-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3년 이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(〈그림 6〉 참조).
  - 경기불황의 여파로 해약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경우라면 수입보험료 규모는 감소하였을 것이고,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에서 증가세가 관측되었을 것임.
  - 하지만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3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2013년 이전에 비해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.



자료: 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통계』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환산.

- 따라서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장기화된 불황의 여파로 보험계약 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음.

## 4. 결론 및 시사점



- 2010년 이래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매년 해약환급금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뜻함.
- 이를 두고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계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.

- 첫째,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뿐만 아니라 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 또한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  - 둘째,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한편,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,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음.
- 첫째, 가계 보험료 지출 규모가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면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.
  - 둘째, 소득양극화에 따라 보험시장이 중·고령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,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.<sup>5)</sup>
    - 중·고령 부유층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해 보험구매 유인이 큰 반면, 젊은 중산층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인해 보험구매력이 감소하며 계약해지 유인이 증가할 수 있음. [KiRi](#)

5) 오승연(2016. 10. 31), 「소득양극화가 가구의 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」, 『KiRi 리포트』, 제365호, 보험연구원.